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홍혜미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The Mediation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in The
Effects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홍혜미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홍 혜 미

홍혜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지현 (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7
II . 이론적 배경.....	8
A. 유아의 정서조절	8
B. 실행기능과 정서조절	11
1. 실행기능의 정의	11
2. 실행기능과 정서조절	14
C.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실행기능	15
D. 부모의 양육행동, 놀이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 실행기능 간 관계	19
III . 연구방법	21
A. 연구대상	21
B. 측정도구	22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22
2. 실행기능 척도	23
3. 어머니 놀이참여 척도	24
C. 연구절차	25
D. 자료분석	26
IV . 연구결과	26

A.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23
B. 측정모형타당도	27
C. 연구모형검증	29
IV. 논의 및 제언	31
A. 결론 및 논의	31
B. 제언	33

참고문헌	35
부 록	45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표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 성 및 신뢰도.....	23
<표 3>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척도 하위요인별 구성 및 신뢰도.....	24
<표 4>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실행기능의 기술통계량.....	27
<표 5> 요인부하량	28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30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30
<표 8>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부트스트래핑.....	31

그림 목차

<그림 1> 가설모형	7
<그림 2> 연구모형 경로모델	31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in The Effects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Hong Hye Mi

Advisor: Prof. Oh Ji-Hyun,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in The Effect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in Child's Emotion Regul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347 mothers.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24 and amos 24.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play participation, when done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had influence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Secondly child's executive mediated the effects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1.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삶 속에서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러한 다양한 정서경험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기분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은 심리·정서적 건강의 기초이다(이정수, 2011).

정서조절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데, 영아기에는 자신의 환경 혹은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Cole, Michel, & Teti, 1994), 이후 발달을 통해 세상에 적응하며, 점차 체계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정해 나간다(Buss & Goldmith, 1998). 만 3세에서 6세는 전두엽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김창윤, 2007), Cole와 그의 동료들(2008)은 만 3-5세 시기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라 강조하였다. 즉, 전두엽은 정서조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거나 규칙을 기억하고, 현실 판단을 하고, 편도체를 환경에 맞게 활성화함으로써, 맥락에 맞게 행동을 억제하여 적절히 표현하도록 한다(Gluck, Mercado & Myers, 2011). 특히 유아기는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또래와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확장해가는 시기로, 정서조절은 이 시기에 습득해야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낮은 유아의 경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임은정, 김수영, 2011; 조정미, 2013), 사회적 행동이 위축되는 등(박지숙, 박성연, 2009) 사회적 능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행동과 주의력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충동적인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 et al, 1997;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Rydell(2003)은 유아기에 획득한 정서조절능력

은 이후 성인기 정서조절능력에 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에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유아기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이후 심각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ox & Calkins, 2003). 환경적 요인으로는 양육자와의 애착(김성애, 2008; Cassidy, 1994; 오성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의 유형(채영문,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유형(김은경, 2005; 이소영, 201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등 이 다양한 부모 요인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질과 실행기능 같은 인지적 특성 등의 영향력이 강조되어 왔다(김정민, 2013). 개인적 요인 중 특히 실행기능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인지적인 능력이 정서적 기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서조절 관련 연구에서 실행기능을 다루기 시작했다(이슬아, 송현주, 2014).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맞춰 사고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행동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고차원적 인지능력으로(도레미,2010), 실행기능은 정서조절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이다(Zelazo et al., 2007). 많은 연구들에서 전두엽 손상 환자들의 정서조절 기능의 저하가 보고된 것을 근거로 전두엽의 기능인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Gryurak, Goodkind, Madan, Kramer, Miiller, & Levenson, 2009). 실행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동 조절, 주의력, 작업 기억 등의 문제는 개인의 정서조절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서, 실행기능은 정서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될 수 있다(이슬아, 송현주, 2014).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은아(2013)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 모두 정서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쳤으며, 만 3세부터 실행기능이 자기조절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또한 강도연(2015)의 연구에서도 인지적 실행기능의 갈등억제와 지연억제와 정서적 실행기능의 지연억제가 정서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슬아, 송현주(2014)는 실행기능의 결함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최윤정, 이승연(2016)도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전환과 작업기억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란희, 김선희(2016)도 실행기능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의 급격한 발달은 유아기인 만 3-5세로 일치하며, 두 변인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실행기능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행기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실행기능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된다(Bernier, Carlson, Deschênes, & Matte-Gagné, 2012; Kopp, 1982; Moriguchi, 2014). 실행기능이 급격히 발달하는 만 3세 에서 5세 사이인 이 시기의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므로 유아의 핵심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실행기능 발달은 부모의 행동이나 양육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추론해볼 수 있다(황혜련, 송현주, 2013).

그러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포함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Hughes, Ensor, Wilson, & Graham, 2010; Raver, Blair, & Willoughby, 2013; Rhoades, Greenberg, Lanza, & Blair, 2011), 부모-자녀 상호작용방식(차기주, 2015; Baptista, Martins, Castiajo, Barreto, & Mateus, 2017; Kraybill & Bell, 2013),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Lucassen et al., 2015;) 등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라는 변인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놀이 제공자이자, 놀이 참여자이자, 놀이 대상자의 역할 등을 하는 부모의 놀이 개입정도를 놀이참여도라고 한다(심윤희, 2011). 유아에게 있어 놀이란 삶 자체이며 발달을 촉진하고(박은주, 2017),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이자, 가장 효율적인 학습의 수단이다(문소라, 황혜정, 2017). 최근 뇌 과학 분야에서도 유아기의 놀이는 정서, 인지, 행동, 사회 등 전반적인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뇌 발달의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 Vaughan, 2009/2010).

이러한 놀이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Piaget는 놀이 대상이 필요하며 유아가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강정원(1994)도 놀이 대상의 부재는 유아의 놀이를 병행놀이나 자기중심 놀이의 형태에 머무르게 하며, 유아의 발달에 효과적인 놀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놀며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 협동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에게 놀이대상자가 되고 지도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인은 부모라 할 수 있다. Lewis와 Boucher(1988)는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상호작용이 놀이의 기원이 되고,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의 최초 놀이 대상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를 계획해주고 촉진하기도 하며 놀이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Hughes, 1995; Russell & Saebel, 1997; 장여옥, 2016, 재인용). 즉, 놀이에서의 부모의 참여와 지도는 유아의 인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Russell & Saebel, 1997; 장여옥, 2016, 재인용). 그러므로 유아기 부모의 놀이참여자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원희영, 1998).

실행기능과 부모의 놀이참여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개념인 자기조절과의 상관을 보면, 부모가 자녀의 놀이 대상으로 직접 참여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다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고 밝혀졌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은 유아의 연령 증가나 인지 발달 등 개인내적인 요소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에 의해서도 학습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endall & Willcox, 1979). 류희정, 이진희(2013)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놀이참여 중 게임, 신체놀이, 구성놀이 참여가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55%를,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놀이참여 중 교수놀이, 기능놀이, 역할놀이가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53%를 설명하였다. 황지현(201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최유석(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도 모두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김찬숙(2010)은 부모의 놀이참여 중에서 신체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에서 참여수준이 높으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으며,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이 많은 집단의 유아들이 더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아,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촉진시켜주기 적합한 놀이참여와 실행기능 촉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의 실행기능 측정은 주로 과제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이를 검사자가 관찰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는데(이가연, 2018), 이러한 방법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며(Isquith et al., 2004), 과제들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이윤정 등, 2014), 제한된 상황 속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의 실행기능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차미숙, 2018)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제수행 측정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부모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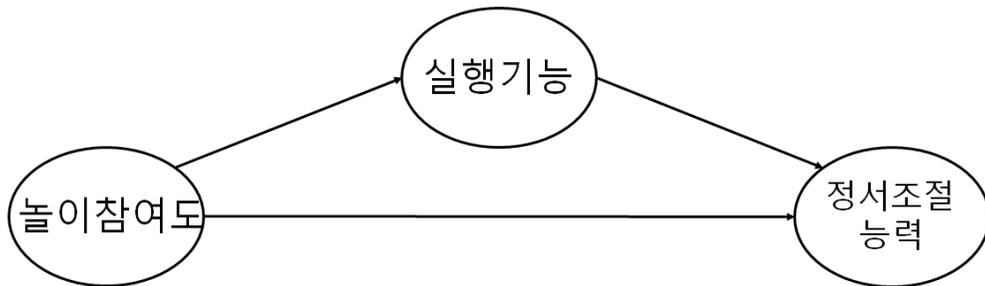
형 질문지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보고형 질문지에도 단점이 있는데, 보고자의 주관에 들어간 편향된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REEF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첫째는 자녀의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 행동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기능적 실행을 보고하는 것이 아닌 실행기능의 성공 혹은 발달을 반영하는 특정한 행동을 보고하도록 구성된 것이다(차미숙, 2018).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의 실제 실행기능 행동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부모보고형 질문지인 ‘REEF’척도를 차미숙(2018)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자 하였다.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실행기능,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관계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림 1> 가설모형



II. 이론적 배경

A. 유아의 정서조절

인간은 삶 속에서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러한 다양한 정서경험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기분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은 심리·정서적 건강의 기초이다(이정수, 2011). 이러한 정서조절 능력이란 상황에 맞게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 및 표현하는 능력으로, 부정적 정서의 충동적 표현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 것과 긍정적 정서표현을 유지, 조화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김은희, 2014).

정서조절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데, 영아기에는 자신의 환경 혹은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Cole, Michel, & Teti, 1994), 이후 발달을 통해 세상에 적응하며, 점차 체계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정해 나간다(Buss & Goldmith, 1998).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신체, 인지, 언어 등의 영역들에서 급속한 발달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보다 광범위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한다(Kopp, 1989; Thompson, 1994). Cole와 그의 동료들(2008)은 만 3-5세 시기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라 강조하였다.

뇌 과학 연구로 인하여 유아기 정서조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송수지, 2014). 전두엽이 정서조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거나 규칙을 기억하고, 현실 판단을 하고, 편도체를 환경에 맞게 활성화함으로써, 맥락에 맞게 행동을 억제하여 적절히 표현하도록 한다(Gluck, Mercado & Myers, 2011). 이러한 전두엽은 3세에서 6세 사이의 시기에 주로 발달한다(김창윤, 2007).

또한 유아기는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또래와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확장해가는 시기로, 정서조절은 이 시기에 습득해야

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또래에 대해 적극적이며, 사교적이며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사회적 능력도 우수하다(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임연진, 2002). 또한, 리더십이 높으며 유치원 생활에서도 적응력이 높아 또래 유능성이 높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Eisenberg et al., 2001; 김하나, 이경님, 2008; 김성희, 정옥분, 2011; 장미희, 이지연, 2011). 또한 우울감을 덜 느끼며 공격적 행동을 덜 나타내며(오희옥, 오선영, 김희영, 2007; 한유진, 2006), 자심감이 있으며 쾌활하고 정서가 안정적이어서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는 일이 드물다고 보았다(김은경, 2005).

반면 정서조절능력에 낮은 유아의 경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임은정, 김수영, 2011; 조정미, 2013), 사회적 행동이 위축되는 등(박지숙, 박성연, 2009) 사회적 능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행동과 주의력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충동적인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 et al, 1997,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Rydell(2003)은 유아기 획득한 정서조절능력은 이후 성인기 정서조절능력에 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에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유아기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이후 심각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ox & Calkins, 2003). 먼저, 환경적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양육자는 유아의 정서적 행동과 반응의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육자와의 애착이 유아의 정서조절행동의 기초라고 보았으며(Cassidy, 1994; 오성경, 2011, 재인용), 김성애(2008)의 연구에서도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

도나 양육방식의 유형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영문, 2010). 같은 맥락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 및 유형(김은경, 2005; 이소영, 201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환경적 요인 중 어머니가 제공하는 심리적 환경, 태도 등은 다른 사회적인 심리적, 물리적 환경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이선영, 2012). 그리고 어머니는 유아에게 정서의 직접적인 모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동일시 대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지영, 2009).

개인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질과 실행기능 같은 인지적 특성 등의 영향력이 강조되어 왔다(김정민,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선천적, 고유적 특성인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거나 적절히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향을 주며(임희수, 박성연, 2002), 기질은 유아의 감정표현과 정서조절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주요변인 중 하나이다(Rot hbart & Bates, 1998; 강도연, 2015, 재인용). 뿐만 아니라 순응적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김현나, 이경님, 2008). 또 다른 개인적 요인인 실행기능은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정서를 인식,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이다(김지은, 2012). 이러한 실행기능은 정서조절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이다(Zelazo et al., 2007).

이상 종합해보면, 정서조절능력은 유아가 적응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하고 이때 형성된 능력이 이후 성인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에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실행기능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 실행기능과 정서조절

1. 실행기능의 정의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맞춰 사고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행동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고차원적 인지능력으로(도레미,2010), 신경심리 분야에서 전두엽 질환자들이 보이는 행동결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강도연, 2015).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는 전두엽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전두엽의 가장 앞부분인 전전두엽의 피질이 자기조절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점차 질환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인내적 차이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Miyake et al., 2000). 실행기능의 초기 연구는 아동기에 급격히 발달하는 뇌의 전두엽피질(Blair, Zelazo, & Greenberg, 2005)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며, 영아, 유아의 실행기능 구조 및 조직, 발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였으나(Espy & Kaufman, 2001), Diamond(1985)의 연구를 시작으로 만 1세부터 전두엽 기능이 발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를 토대로 1990년대에 초기 발달 시기의 실행기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차미숙, 2018). 이후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과제와 방법으로 수정, 개발함으로써 연구가 활발해졌다(김정민, 2013).

실행기능의 발달은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아기부터 시작되어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급격하게 향상된다(Weintraud et al., 2010; Center, 2012). 실행기능은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유아기에 실행기능이 발달하는 속도와 전두엽이 발달하는 속도가 일치하여 둘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된다(이가연, 2018). 김유미(2007)는 만 4세경에 전전두엽 발달이 활성화된다고 하였고, 최은아(2013)의 연구에서 또한 인지적 실행기능은 만 3~4세에 빠르게 발달하였고, 만 4세경에는 만 5세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Friedman, Miyake, Robinson과

Hewitt(2011)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실행기능은 성장한 이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기의 실행기능 발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행기능은 전전두피질 기능과 관련된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Anderson, 2002; Carlson, 2005). 실행기능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중에서도 단일성을 주장하는 단일모델과(Duncan, 1995; Kimberg, D'Esposito, & Farrah, 1997), 여러 하위요인이 결합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다차원적 모델이 있다(Hughes, 1998; Miyake et al., 2000; Anderson, 2002).

초기의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을 단일(unitary) 구조로 개념화하였는데 즉, 실행기능은 단일성을 가지며 구별되어 작동하는 하위 기능이나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Shallince, 1998; 강도연, 2015, 재인용). 그러나 이후의 연구(Bigler, 1988; Grattan & Eslinger, 1991; Pennington & Ozonoff, 1996)에서 동일한 뇌 손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실행기능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동일한 뇌 손상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과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실행기능은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Lezak(1983)는 실행기능이란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고차원적 인지 기술들로 구성된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Pennington과 Ozonoff(1996) 또한 실행기능은 계획하기, 행동결정, 목표설정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Miyake 등(2000)은 다른 요인들을 배제시킨 측정치들을 프로그래밍한 다양한 검사들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억제, 전환, 작업기억 3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3가지 요인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이며, 즉 유아가 현재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장 하고 싶은 우세한 반응은 '억제'하고, 하고 있던 것을 멈추고 해야 하는 것에 주의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정보를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송수지, 2014).

한편, 실행기능의 구조를 이분법적 측면으로 단순히 ‘단일성 대 다양성’이라고 접근하는 것 보다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되었다(Miyake et al., 2000). Miyake 등(2000)은 연구를 통해, 세 가지 영역인 억제, 전환, 작업 기억은 상호 연관적이어서 몇몇의 공통적인 기본 과정을 공유하면서(단일성), 어느 정도는 분리될 수도 있다(다양성)는, ‘단일성(unity)/다양성(diversity)’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접근으로서, 뇌생리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실행기능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Zelazo와 Muller(2002)는 실행기능을 인지적 실행기능(Cool Executive Function), 정서적 실행기능(Hot Executive Function)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실행기능은 추상적이고 맥락이 배제된 상황에서 측정 되어진 기존의 실행기능으로 학습과 관련된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송수지, 2014; Brock et al., 2009), 정서적 실행기능은 동기나 정서가 포함된 맥락에서 필요한 실행기능으로 정서조절능력과 사회능력이나 친사회적 기술,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다(송수지, 2014). 두 차원 중 기존의 실행기능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행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실행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실행기능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차미숙, 2018).

한편, 실행기능의 측정은 주로 과제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이를 검사자가 관찰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이가연, 2018). 수행에 기반한 측정 대부분이 검사자와 피검자가 일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자가 피검자를 관찰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질적인 측면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주리, 송현주, 2012).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며(Isquith et al., 2004), 과제들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이윤정 등, 2014). 유아는 실험실 안에서 방해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지침에 따라 실험 과제를 수행하며, 수행 동안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생활에서의 실행기능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차미숙, 2018). 또한 실험실 분위기에 긴장하여 평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

할 수도 있다(이윤정 등, 2014). 이렇듯 과제 수행을 통한 실행기능 측정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실행기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Isquith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제수행 측정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부모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보고형 질문지에도 단점이 있는데, 보고자의 주관이 들어간 편향된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REEF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첫째는 자녀의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 행동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기능적 실행을 보고하는 것이 아닌 실행기능의 성공 혹은 발달을 반영하는 특정한 행동을 보고하도록 구성된 것이다(차미숙, 2018).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의 실제 실행기능 행동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부모보고형 질문지인 ‘REEF’척도를 차미숙(2018)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자 하였다.

2. 실행기능과 정서조절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는 실행기능과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Beck et al., 2011). 그러나 발달적 인지신경과학에서는 정서와 인지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보 처리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함께 작용한다고 보았다(Bell & Wolf, 2004).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인지적인 능력이 정서적 기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서조절 관련 연구에서 실행기능을 다루기 시작했다(이슬아, 송현주, 2014). 정서조절과 인지조절의 연관성은 공통적인 신경 구조와 회로에 의해 설명되는데, 특히 전두엽 기능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Wolfe & Bell, 2007). 많은 연구들에서 전두엽 손상 환자들의 정서조절 기능의 저하가 보고된 것을 근거로 전두엽의 기능인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Gryrak et al., 2009). 과제 수행 시 전두엽과 실행기능 손상 환자들은 적절한 정서 단서를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Rule, Shimamura, &

Knight, 2002), 정서적 자극에 관한 의식적인 조절 및 인지적 재평가에서 실행기능이 관련됨이 밝혀졌다(Oshsner, Bunge, Gross, & Gabrieli, 2002).

실행기능은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정서를 인식,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이며(김지은, 2012), 이러한 실행기능은 정서조절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이다(Zelazo et al., 2007). 실행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동 조절, 주의력, 작업 기억 등의 문제는 개인의 정서 조절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서, 실행기능은 정서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될 수 있다(이슬아, 송현주, 2014).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은아(2013)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 모두 정서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쳤으며, 만 3세부터 실행기능이 자기조절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또한 강도연(2015)의 연구에서도 인지적 실행기능의 갈등억제와 지연억제와 정서적 실행기능의 지연억제가 정서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슬아, 송현주(2014)는 실행기능의 결함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최윤정, 이승연(2016)도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전환과 작업기억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란희, 김선희(2016)도 실행기능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 적응을 위해 필수요소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실행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C.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실행기능

실행기능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된다(Bernier et al., 2012; Kopp, 1982; Moriguchi, 2014).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실행기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므로 아동의 핵심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실행기능 발달은 부모의 행동이나 양육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추론해볼 수 있다(황혜련, 송현주, 2013).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실행기능과 부모관련 변인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제기하였다(황혜련, 송현주, 2013). 유아기의 환경적 경험이 뇌의 전두엽피질 신경회로 발달을 촉진하여, 실행기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Kolb et al., 2012; 차미숙, 2018 재인용). 또한 Glaser(2000)은 전두엽의 발달, 특히 실행기능의 발달은 초기 양육자와의 민감한 상호작용과 적절한 환경 제공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Kopp(1982)은 생애초기 양육은 아동의 자기 조절 및 실행 기능의 능력을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애착 연구에서는 생애초기의 양육자는 아동의 정서 및 생체 리듬의 외적 조절자이며, 이는 점차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촉진시킨다고 밝혔다(Hofer, 1995).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포함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Hughes et al., 2010; Raver, Blair, & Willoughby, 2013; Rhoades et al., 2011), 부모-자녀 상호작용방식(차기주, 2015; Baptista et al., 2017; Kraybill & Bell, 2013),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Lucassen et al., 2015;) 등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란 삶 자체이며 발달을 촉진하고(박은주, 2017),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이자, 가장 효율적인 학습의 수단이다(문소라, 황혜정, 2017). 또한 놀이는 유아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매개체로써 유아의 '있는 그대로의 삶'이 된다(오정희, 임부연, 2008). 최근 뇌 과학 분야에서도 유아기의 놀이는 정서, 인지, 행동, 사회 등 전반적인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뇌 발달의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 Vaughan, 2009/2010). 또한 놀이는 실행기능 발달에 관련된 인지적 요인, 즉 기억, 지능, 언어(C. Blair, R. P. Razza, 2007) 등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은주, 2017).

놀이와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본 연구를 보면,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놀이유형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사회놀이와 정서놀이가 영향을 미친다(박은주, 2013; 박은주, 2017). 또한 박은혜(2015)의 연구에서는 혼합연령 실외놀이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겪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규칙을 지키고,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조절하여 표현함으로써 실행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은혜, 2015; 박은주, 2017).

이러한 놀이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Piaget는 놀이 대상이 필요하며 유아가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강정원(1993)도 놀이 대상의 부재는 유아의 놀이를 병행놀이나 자기중심 놀이의 형태에 머무르게 하며, 유아의 발달에 효과적인 놀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놀며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 협동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Vygotsky(1978)는 유아의 발달에서 특히 성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성인의 지도 및 도움은 영유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발달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명순·성지현, 2002, 재인용).

유아에게 놀이대상자가 되고 지도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인은 부모라 할 수 있다. Lewis와 Boucher(1988)는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상호작용이 놀이의 기원이 되고,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의 최초 놀이 대상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를 계획해주고 촉진하기도 하며 놀이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Hughes, 1995; Russell & Saebel, 1997). 즉, 놀이에서의 부모의 참여와 지도는 유아의 인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Russell & Saebel, 1997). 그러므로 유아기 부모의 놀이참여자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희영, 1998). 이러한 놀이 제공자이자, 놀이 참여자이자, 놀이 대상자의 역할 등을 하는 부모의 놀이 개입정도를 놀이참여도라고 한다(심윤희, 2011).

실행기능과 부모의 놀이참여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개념인 자기조절과의 상관을 보자면, 부모가 자녀의 놀이 대상으로 직접 참여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다(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고 밝혀졌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연령 증가나 인지발달 등 개인내적인 요소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에 의해서도 학습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endall & Willcox, 1979). 류희정, 이진희(2013)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놀이참여 중 게임, 신체놀이, 구성놀이 참여가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55%를,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놀이참여 중 교수놀이, 기능놀이, 역할놀이가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53%를 설명하였다. 황지현(201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최유석(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도 모두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김찬숙(2010)은 부모의 놀이참여 중에서 신체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에서 참여수준이 높으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으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이 많은 집단의 유아들이 더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 대상으로 놀이에 참여할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더욱 발달된다(Isenberg & Jacobs, 1982)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D. 어머니 놀이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 실행기능 간 관계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부모에 관한 요인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자와의 애착(Cassidy, 1994; 오성경, 2011, 재인용; 김성애, 2008),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의 유형(채영문,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유형(김은경, 2005; 이소영, 201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송미란, 2015), 부모의 놀이참여수준(김찬숙, 2010) 등 다양한 부모 요인들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모의 신체놀이와 기능놀이 참여수준이 높을 때 자기조절 능력의 정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찬숙, 2010),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란, 2015).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인적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기질과 실행기능 같은 인지적 특성 등의 영향력이 강조되어 왔다(김정민, 2013). 그중에서도 실행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이 높을 경우 정서조절능력도 높게 나타남으로 밝혀졌다(최은아, 2013; 강도연, 2015; 이슬아, 송현주, 2014; 최윤정, 이승연, 2016; 유란희, 김선희, 2016).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희정, 이진희, 2013; 황지현, 2012; 최유석, 2017; 김찬숙, 2010). 이 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렇듯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머니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고, 유아의 실행기능은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유아의 실행기능이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 놀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아기 중 만 5세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전두엽 기능으로 인해 만 3~4세의 정서조절능력, 실행기능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만 5세경에 접어들며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발달이 점차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최은아, 송하나, 2013, Weintraub et al., 2010; Center, 2012), 유아 간 발달 속도에 따른 개인차를 줄이고자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411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고 대상 연령에 부합하지 않은 64부를 제외한 347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47)

요인	구분	N(%)
자녀 성별	남	177(51%)
	녀	170(49%)
어머니 연령	20대	22(6.3%)
	30대	220(63.4%)
	40대	105(30.3%)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76(21.9%)
	전문대 졸업	69(19.9%)
	대학교 졸업	179(51.6%)
	대학원 졸업 이상	23(6.6%)

모 취업	전일제	170(49%)
	시간제	59(17%)
	미취업	118(34%)

B. 측정도구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hicchetti(1998)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박재윤이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2013)의 유아용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15문항과 정서통제능력 9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통제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 예시로는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잘 옮겨간다.’등을 들 수 있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로 측정한 문항내적 일치도는 .62 ~ .81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점수 범위
정서 통제능력	유아가 스스로의 마음을 침착히 조절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감정 이입할 수 있는 능력	1, 3, 4, 5, 7, 9, 11, 15, 21	9	.62	1-4
부적응적 정서조절	분노나 공격적 상황 등의 부정적 상황에서 유아가 자신의 정서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보이는 정서반응	2, 6, 8, 10, 12, 13, 14, 16, 17, 18, 19, 20, 22, 23, 24	15	.81	1-4

2. 실행기능 척도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Nilsen 등(2017)이 개발하고, 차미숙(2018)이 번안한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atings of Everyday Executive Functioning; REEF)’를 사용하였다. 차미숙(2018)은 원척도의 76개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73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쉽게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아의 행동 중 실행기능의 발달을 의미하는 행동들을 구체적인 장소 혹은 상황(가정, 동네, 마트 등)별로 제시하고 있다. 만 3세부터 5세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최근 3개월 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의 빈도나 강도에 따라 0~3점으로 응답하며, 총합이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유아 실행기능 척도(REEF)의 Cronbach α 는 .96이었다.

3. 어머니 놀이참여도 척도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evenson, Thompson 그리고 Rosch(1988)의 놀이 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정도 단계를 참고로 하여서 원희영(1998)이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놀이참여 측정은 유아의 어머니가 측정하고, 놀이유형은 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 게임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 6가지이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 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70~.88이었다.

<표 3>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구성놀이	다양한 놀이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놀이(만들기, 쌓기, 배열하기, 그리기, 퍼즐 맞추기)	1, 2, 3	3	.83
신체놀이	경미한 신체적 놀이와 서로 몸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격렬한 신체놀이(예, 서로 껴안기, 잡기 놀이, 달리기, 씨름하기)	4, 5, 6, 7	4	.77
교수놀이	사물의 이름, 색깔, 그리고 수를 가르쳐 주기위해서 책을 보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놀이(예, 동화책 읽기, 숫자놀이, 그림책 보기)	8, 9, 10, 11	4	.85

게임	규칙이 있고 목표지향적인 신체적·언어적 활동, 패턴이 있는 상호작용적 활동(예, 주사위 놀이, 윷놀이, 카드놀이, 수수께끼, 컴퓨터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숨바꼭질)	12, 13, 14	3	.70
역할놀이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치하는 놀이(예, 소꿉놀이, 병원놀이, 전쟁놀이)	15, 16, 17, 18	4	.88
기능놀이	놀이감의 속성에 관계없이 자발적이고 활발하게 사물을 조작하는 행동(예, 구슬굴리기, 공굴리기, 볼링(장난감), 비눗방울 불기, 비행기 날리기)	19, 20, 21, 22	4	.81

C. 연구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유아교육기관의 책임자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후, 유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동의한 기관에 한하여 각 기관의 만 5세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유아기관의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유아의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본 연구자가 최종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2018년 7월 첫째 주부터 배포하였고 동년 10월 첫째 주까지 41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고 대상 연령에 부합하지 않은 64부를 제외한 34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D.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검증 및 t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4.0을 이용해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척도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A.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실행기능의 기술통계

본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실행기능의 기술 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척도를 통하여 다변량정규분포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왜도, 첨도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Lei & Lomax, 2005) 최대우도추정법(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구조방적식모형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실행기능의 기술 통계량

	하위요인	문항수	M(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놀이 참여도	구성놀이	3	2.7983(.698)	1.00	4.00	-.276	-.313
	신체놀이	4	3.3365(.575)	1.00	4.00	-.905	.505
	교수놀이	4	3.4921(.541)	1.00	4.00	-1.266	2.193
	게임	3	3.4390(.537)	1.00	4.00	-1.053	1.195
	역할놀이	4	3.0432(.675)	1.00	4.00	-.583	.250
	기능놀이	4	3.2435(.587)	1.00	4.00	-.664	.282
정서조절 능력	정서통제 능력	9	3.0868(.306)	2.22	3.78	-.079	-.259
	부적응적 정서조절	15	3.1130(.373)	1.47	3.80	-.950	1.375
	실행기능	73	2.8742(.401)	1.46	3.88	-.173	.508

B. 측정모형의 타당도

1.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은 수렴타당성이라고도 불리며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 유의성,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및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70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높다는 것은 해당하는 요인에 대한 측정문항들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념 신뢰도는 .70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는 .50이상이면 만족스러울만한 집중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Woo, 2012). 본 연구에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념 신뢰도(CR)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922, 실행기능은 .978,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939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요인부하량

		β	S.E	<i>t</i>	AVE	개념 신뢰도
정서조절 능력	→ 정서통제 능력	.750		Fix	.859	.922
	→ 부적응적 정서조절	.536	.129	.872***		
	→ A	.727		Fix		
	→ B	.769	.072	1.012***		
실행기능	→ C	.833	.067	1.012***	.867	.978
	→ D	.841	.074	1.140***		
	→ E	.732	.070	.932***		
	→ F	.719	.079	1.028***		
	→ G	.741	.082	1.098***		
	→ 기능놀이	.800		Fix		
	→ 역할놀이	.693	.077	.997***		
놀이 참여도	→ 게임	.760	.061	.871***	.723	.939
	→ 교수놀이	.579	.063	.668***		
	→ 신체놀이	.764	.065	.937***		
	→ 구성놀이	.584	.081	.870***		

*p < .05, **p < .01, ***p < .001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개념이라는 검증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도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잠재변수간 상관(ρ)의 제곱값보다 AVE 값이 크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간 상관이 가장 높은 정서조절능력과 실행기능의 쌍을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검증하였다. 정서조절능력과 실행기능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441이고, 정서조절능력의 AVE는 .859, 실행기능의 AVE는 .867으로, 두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연구모형검증

이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TLI, IF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TLI, IFI, CFI, G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RMSEA의 경우 .08이하인 경우 적당한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Hong, 2000).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집중타당성과 잠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판별타당성이 있다(Woo,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당성들의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우도 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인 χ^2 , GFI, '증분적합지수인' TLI, IFI, CFI를 사용하였다. TLI=.937, IFI=.948, CFI=.915, RMSEA=.071으로 기준 값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Fit indices	χ^2	df	x제곱/df	TLI	IFI	CFI	GFI	RMSEA
Value	236.924***	87	2.723	.937	.948	.948	.915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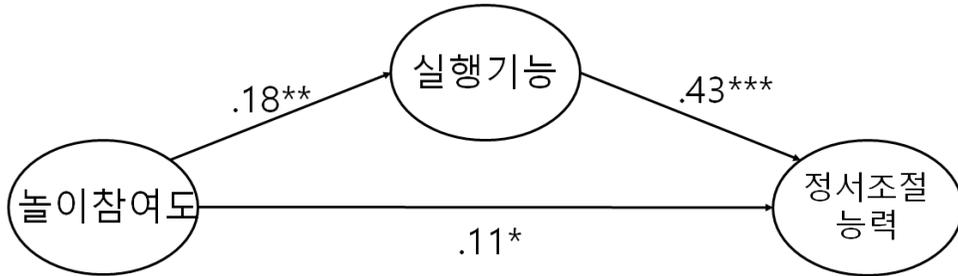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경로계수의 결과를 <표 7>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알아보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한바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표 7>와 같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실행기능($\beta = .144, p < .01$)과 정서조절능력($\beta = .069,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행기능은 정서조절능력($\beta = .343, p < .000$)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실행기능을 매개하여 정서조절능력에 가는 경로에서($.080, p = .038$)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Path of latent variables		β	B	S.E	C.R	P
놀이참여도	→ 실행기능	.145	.184	.048	3.034	.002
실행기능	→ 정서조절능력	.343	.432	.054	6.337	.000
놀이참여도	→ 정서조절능력	.069	.110	.028	2.434	.015

<그림 2> 경로모델



<표 8>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부트스트래핑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놀이참여도	→	실행기능	.184	-	.184
실행기능	→	정서조절능력	.432	-	.432
놀이참여도	실행기능 →	정서조절능력	.110	.080 (p=.038)	.190

V. 논의 및 제언

A.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만 5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기관에 있는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3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의 실행기능이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는데, 즉 실행기능의

발달이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분노나 공격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휩쓸리지 않으며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기능이 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강도연, 2015; 유란희, 김선희, 2016; 이슬아, 송연주, 2014; 이승연, 2016; 최은아, 2013). 또한 인지억제, 행동억제가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김지은, 2015)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놀이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유아의 실행기능 능력 또한 높아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를 계획해주고 촉진하기도 하며 놀이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Hughes, 1995; Russell & Saebel, 1997), 놀이에서의 부모의 참여와 지도는 유아의 인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Russell & Saebel, 1997)라는 연구들과 맥락을 함께한다.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선행연구들(류희진, 이진희, 2013; 최유석, 2017; 황지현, 2012)과 특히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 억제 능력도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찬숙, 2010)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는 놀이 속에서 촉진자이자 지도자의 역할로서, 놀이를 더욱 활발히 확장시켜 다양한 상황들을 제공해주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고, 행동의 통제와 표현법을 자연스럽게 학습시켜 줄 수 있다. 이는 유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자신의 사고를 스스로 조절해볼 수 있는 사회적응을 위한 연습의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이 많을수록 유아는 일상생활에서도 상황을 이해하고 사고와 행동을 더욱 잘 조절·관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

하고, 자신의 정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유아의 정서조절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 축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그간 실행기능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Hughes, Ensor, Wilson, & Graham, 2010; Raver, Blair, & Willoughby, 2013; Rhoades, Greenberg, Lanza, & Blair, 2011), 부모-자녀 상호작용방식(차기주, 2015; Baptista, Martins, Castiajo, Barreto, & Mateus, 2017; Kraybill & Bell, 2013),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Lucassen et al., 2015;)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확인하였는데, 유아의 놀이가 실행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박은혜, 2015; 박은주, 2017), 유아 최초의 놀이대상자이며 지도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인인 부모의 놀이참여도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유아기의 놀이는 정서, 인지, 행동, 사회 등 전반적인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뇌 축진에 도움을 주지만(Brown & Vaughan, 2009/2010), 놀이 대상의 부재는 유아의 놀이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며 병행놀이나 자기중심 놀이의 형태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강정원, 1993), 부모의 놀이참여도는 아동의 놀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유아의 실행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모교육 시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참여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 제언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를 어머니로 설정하고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다루었으나,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놀이 참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원희영, 1998, 최진주, 2004; Lamb, 2010a; Parke, 1981)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요인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도연 (2015). 유아의 실행기능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원 (1993). 아버지의 놀이참여 형태와 유아 자신의 유능성 지각.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순, 성지현 (2002). 1세 영아의 언어와 놀이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3(5), 19-34.
- 김성애 (2008).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시설유아와 일반유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유미 (2007). 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뇌 과학적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12.
- 김은경 (2005).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2014).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3). 실행기능과 기질이 유아의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영 (200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정서조절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소아정신과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18.
- 김지은 (2012).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억제, 작업기억, 전환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숙 (2010).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부모의 놀이참여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윤 (2007). 인지발달 과정의 뇌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음악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나, 이경남 (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 곽금주 (2016). 발달심리학: 아동기를 중심으로, 학지사, 163
- 도레미, 조수철, 김봉년, 김재원, 신민섭 (2010). 아동기 실행기능의 발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2). 1-12.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47-64.
- 문소라, 황혜정 (2017).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및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26(3), 149-168.
- 박은주 (2013). 유아의 놀이유형과 실행기능간의 관계. 한국유아교육학회, 536-537.
- 박은주 (2017).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놀이유형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1), 185-197.
- 박은혜 (2015). 포스터 발표: 혼합연령집단 실외놀이가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558-558.
- 박주리, 송현주 (2012). 아동용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 결함 질문지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1-23.
- 박지숙, 박성연 (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박재윤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기질-양육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란 (2015). 아버지 양육참여도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지 (2014). 만 4세 남녀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윤희 (2011). 부모의 놀이성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은진, 이경옥 (2011). 남녀 유아의 정서조절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6(6). 25-47.
- 오성경 (2011).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희, 임부연 (2008). 유아놀이에서 나타나는 언어세계에 대한 의미 탐구. 영유아보육연구, 14, 75-92.
- 오희옥, 오선영, 김희영 (2007).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대한가정학회지, 45(2), 1-22.
- 우수영, 최기영 (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22(2). 29-56.
- 유란희, 김선희(2016).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인과적 관련성.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7-208.
- 이가연, (2018). 학령기 마음이론과 실행기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12). 유아의 놀이성 및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2011). 부모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19(1), 283-305.
- 이슬아, 송현주 (2014). 정서자극 평가와 실행기능 결함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3), 581-599.
- 이윤정 (201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26.
- 이정수 (2011). 유아 및 교사변수가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자료분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2), 143-157.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은정, 김수영 (201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력 및 관련 변인들과 사회적 능력간의 구조관계분석. 유아교육연구, 31(4), 5-31.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원희영(1998).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조정미 (2013). 유아의 성·연령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정서조절력 및 공격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기주 (2015).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과 모의 상호작용 양상 및 특성 간 관계. 유아교육연구, 35(2), 117-141.
- 차미숙 (2018).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학교준비도,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영문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117-132.
- 최유석 (2017). 부모의 놀이참여 및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이승연 (2016). 초기 청소년기 부모 애착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 실행기능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발달지원학회, 5(1), 53-73.
- 최은아 (2013). 유아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

- 과 자기조절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주 (2004).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아버지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능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한국아동학회. 28(3). 77-100.
- 한유진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황지현 (2012).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 조절 능력 간의 구조모형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혜련, 송현주 (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양육태도. 재활심리연구. 20(2). 149-167.
- Anderson, P. (2002).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EF) during childhood. *Child neuropsychology*, 8(2), 71-82.
- Baptista, J., Osório, A., Martins, E. C., Castiajo, P., Barreto, A. L., Mateus, V., Spares, I., & Martins, C. (2017). Maternal and paternal mental-state talk and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 children. *Social Development*, 26(1), 129-145.
- Beck, D. M., Schaefer, C., Pang, K., & Carlson, S. M. (2011).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 Children; Test-Retest Reliability. *Cognitive Development*, 12(1), 169-193.
- Bell, M. A & Wolfe, C. D. (2004). Emotion and cognition; An intricately bound developmental process. *Child Development*, 75, 366-370.
- Bernier, A., Carlson, S. M., Deschênes, M., & Matte-Gagné, C. (2012). Soci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executive functioning: A closer look at the caregiving environment. *Developmental Science*, 15, 12-24.
- Bigler, E. (1988). Frontal lobe damage and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Archives of Clinical Neuropsychology*, 3, 279-297.

- Blair, C., & Razza, R. P. (2007). Relating effortful control, executive function, and false belief understanding to emerging math and literacy ability in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8*(2), 647–663.
- Blair, C., Zelazo, P. D., & Greenberg, M. T. (2005). The measurement of executive function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europsychology, 28*(2), 561–571.
- Brock, L. L., Kaufman, S. E., Nathanson, L., & Crimm, K. J. (2009). The contributions of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related behaviors, and engagement in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 337–349.
- Brown, S., & Vaughan, C. (2010). 플레이-즐거움의 발견 (윤미나 역). 서울: 흐름출판. (원서 2009년 발행)
- Buss, K. A., & Goldsmith, H. H. (1998). Fear and anger regulation in infancy: Effects on the temporal dynamics of affective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69*, 359–374.
- Carlson, S. M. (2005). Developmentally sensitive measure of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8*, 595–616.
- Center (2012). InBrief: Executive Function. Center on Developing Child, Harvard University.
- Cole, P. M., Dennis, T. A., Smith–Simon, K. E., & Cohen, L. H. (2008).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strategy understanding: Relations with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 self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8*, 324–352.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73–100.

- Diamond, A. (1985). Development of the ability to use recall to guide action, as indicated by infants' performance on AB. *Child Development*, 56(4), 868-883.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Guthrie, I. K., & Murphy, B, C.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75-490.
- Espy, K. A. & Kaufman, P. M.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in children; Lessons from delayed response and A-not-B task. In D. L. Molfes & V. Molfes(Eds.), *Developmental variations in Learning: Applications to social, executive function, language and reading skills*(pp. 113-137), Mahwah, NJ: Erlbaum.
- Fox, N. A. & Calkins, S. D. (2003).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of emotion: Intrinsic and extrinsic influences. *Motivation and Emotion*, 27(1), 7-26.
- Friedman, N. P., Miyake, A., Robinson, J. L., Hewitt, J. K. (2011).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Toddlers' Self-Restraint Predict Individual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s 14 Years Later: A Behavioral Genetic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410-1649.
- Glaser, D. (2000).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brain: A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97 - 116.
- Gluck, M. A., Mercado, E., & Myers, C. E (2011). *학습과 기억. 최준식, 김현택, 신맹식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Grattan, L., & Eslinger, P. J. (1991). Frontal lobe damage in children and adults: A comparative review.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7(3), 283-326.

- Gryrak, A., Goodkind, M. S., Madan, A., Kramer, J., Miller, B. L., & Levenson, R. W. (2009). Do tests of executive functioning predict ability to downregulate emotions spontaneously and when instructed to suppress?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9*(2), 144–152.
- Hofer, M. A. (1995). Hidden regulators: Implications for a new understanding of attachment, separation, and loss.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203–230).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Hughes, C., Ensor, R., Wilson, A. & Graham, A. (2010). Tracking executive function across the transition to school: A latent variable approach.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35*(1), 20–36.
- Isenberg, J. p., & Jacobs, J. E. (1982). *Playing as learning tools: A parent's guide*. John Wiley 7 sons, Ins.
- Isquith, P. K., Gioia, G. A., & Espy, K, A. (2004).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 children: Examination through everyday behavior.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1), 403–422.
- Kendall, P. C. & Willcox, L. L.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20–1029.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 view. *Development Psychology*, *25*(3), 343.
- Kraybill, J. H., & Bell, M. A. (2013). Infancy predictors of preschool and post-kindergarten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55*(5), 530–538.
- Lamb, M. E. (Ed.) (2010).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Hoboken, NJ: Wiley.

- Lewis, V. & Boucher, L. (1988). Spontaneous, instructed and elicited play in relatively able autistic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6(4), 325–339.
- Lezak, M. D. (1983).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cassen, N., Kok, R., Bakermans–Kranenburg, M., Van Ijzendoorn, M. H., Jaddoe, V. W. V., Hofman, A., & Tiemeier, H. (2015). Executive functions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practic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489–505
- Miyake, A., Friedman, N. P. (2012). The nature and organiz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s: Four general conclus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1), 8–14.
- Miyake, A., Friedman, N. P., Emerson, M. J., Witzki, A. H., & Howerter, A. (2000). The unity and diversity of executive functions and their contributions to complex “Frontal lobe” task: A latent variable analysis. *Cognitive Psychology*, 41(1), 49–100.
- Moriguchi, Y. (2014). The early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and its relation to social interaction: A brief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5, 388.
- Oshsner, K, N., Bunge, S. A., Gross, J. J., & Gabrieli, J. D. E. (2002). Rethinking feelings: An fMRI study of the cognitive regulation of emo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4(8), 1215–1229.
- Parke, R. D. (1981). *Fathering*. (Mass: Harvard Univ. Press). p. 9.
- Patterson, C.T.,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5), 1335–1349.
- Pennington B. F., & Ozonoff, S. (1996). Executive function and sand

-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108, 607–620.
- Raver, C. C., Blair, C. & Willoughby, M. (2013). Poverty as a predictor of 4-year-olds' executive function: New perspectives on models of differential suscept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9(2), 292–304.
- Rhoades, B. L., Greenberg, M. T., Lanza, S. T. & Blair, C. (2011). Demographic and familial predictors of early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Contribution of a person-centered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8(3), 638–662.
- Rule, R. R., Shimamura, A. P. & Knight, R. T. (2002). orbitofrontal cortex and dynamic filtering of emotional stimuli. *Cognitive, affection, & behavioral neuroscience*, 2(3), 264–270.
- Rydell, A., M. Berlin, L., & Bohlin, G. (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to 8-year-old children, *Emotion*, 3(1), 30.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Wolfe, C. D., & Bell, M. A. (2007). Sources of variability in working memory in early childhood: A consideration of age, temperament, language, and brain electrical activity. *Cognitive Development*, 22(4), 431–455.
- Zelazo, P. D. & Cunningham, W. A. (2007), Executive function: Mechanism underlying emotion regulation. In J. J. Gross(Ed.), *Handbook of emotion* (pp. 135–158). NY: Guilford.
- Zelazo, P. D & Muller, U. (2002). Executive function in typical and atypical development, In U. Goswami (Ed.)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pp. 445–469). Malden, MAL: Blackwell.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연구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연구제목: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2. 연구목적: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영향을 주는데, 이를 중재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와 그들의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책임연구자(소속): 홍혜미(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4. 참여기준(성, 연령, 건강상태 등):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5.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는 설문지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특성과 자신의 양육행동, 놀이참여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자녀와 자신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6. 참여시간
-질문지 3개종류 응답시간은 총 10~15분소요 예상.
7. 문의처(이름, 연락처)
-홍혜미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010-3388-0791 / hhmhbm0301@hanmail.net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과제명 :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영향을 주는데, 이를 중재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문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하시기 바라며, 의논하실 분이 없으신 경우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공정한 입회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연구원은 이 연구에 관한 귀하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촉진시켜주기 적합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에 관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아의 개인적 요인인 실행기능이 어머니요인과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중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논문입니다. 귀하가 이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와 그들의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연구 참여 대상자수

본 연구에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약 20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연구 방법 및 예측 결과(효과)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hicchetti(1998)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박재윤이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2013)의 유아용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한다. 본 척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15문항과 정서통제능력 9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통제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가된다.

- 유아의 실행기능 척도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Nilsen 등(2017)이 개발하고, 차미숙(2018)이 번안한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atings of Everyday Executive Functioning; REEF)’를 사용한다. 차미숙(2018)은 원척도의 76개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73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유아의 행동 등에서 실행기능 발달을 의미하는 행동들을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가정, 동네, 마트 등)별로 제시하고 있다. 부모는 만 3세부터 5세 자녀의 최근 3개월 모습을 떠올리며 문항에 제시하는 행동의 빈도나 강도에 따라 0~3점으로 응답한다. 총합이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어머니 놀이참여도 척도

부모의 놀이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tevenson, Thompson 그리고 Rosch(1988)의 놀이 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정도 단계를 참고로 하여 원희영(1998)이 제작한 검사지 사용한다. 놀이유형은 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 게임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 6가지이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 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구분되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측결과: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행기능이 매개할 것이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의 질문지(총 3개 종류) 응답을 위해 10~15분가량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설문지 작성을 중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낸 이후에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위험요소)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 및 귀하의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와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연구 참여시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다른 치료방법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권리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자녀의 연령은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외장하드 및 개인 캐비닛에 보관되며 연구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되며 이후 폐기될 것입니다.

10.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발생시 조치사항과 피해보상 규정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11.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 책임자(성명): 홍혜미 전화번호: 010-3388-0791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 하십시오. (전화번호: 062-230-6691)

· 끝까지 읽으셨다면 연구담당자(연구원)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와 자녀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surd 표를 해주십시오.

1. 자녀의 성별은?

- ①남 ②여

2. 자녀의 연령은?

만 _____ 세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자녀의 출생순위

- ①첫째 ②둘째 ③셋째 이상

4. 어머니의 연령은?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5.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전문대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졸업 이상

6.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 ①전일제 취업 ②시간제 취업 ③미취업

7.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양육자는?

- ①모 ②부 ③조부모 ④기타(어린이집, 베이비 시터 등)

※다음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유아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명랑한 아이다.	1	2	3	4
2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1	2	3	4
3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	2	3	4
4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잘 옮겨간다.	1	2	3	4
5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후, 시무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한다.	1	2	3	4
6	쉽게 좌절한다.	1	2	3	4
7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	2	3	4
8	쉽게 화를 폭발하거나 떼를 쓰는 경향이 있다.	1	2	3	4
9	만족감을 지연할 수 있다(즉, 자신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	1	2	3	4

	다).				
10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별을 받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는 등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1	2	3	4
11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정신없이 놀지 않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등) 정서적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12	어른에게 칭얼거리나 들러붙지 않는다.	1	2	3	4
13	에너지가 넘쳐서 타인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4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 화를 낸다.	1	2	3	4
15	슬프거나 화날 때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1	2	3	4
16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1	2	3	4
17	다른 아이들과 놀려고 할 때 에너지가 지나치게 넘친다.	1	2	3	4
18	표정이 없거나 공허하며 멍한 듯 보인다.	1	2	3	4
19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해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	2	3	4
20	충동적이다.	1	2	3	4
21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는 등 감정이입을 잘한다.	1	2	3	4

22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면 매우 흥분한다.	1	2	3	4
23	다른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간섭하면 그에 적절한 부정적 감정을 보인다.	1	2	3	4
24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1	2	3	4

※다음은 유아의 일상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양한 상황(A~G)에 해당하는 각 문항을 읽고, 최근 3개월 사이에 이러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관찰하였는지를 떠올려보신 후,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A. 내 아이는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숨바꼭질에서 술래가 되었을 때, 숫자를 세면서 몰래 훑쳐보지 않는다.	1	2	3	4
2.	자기 차례에 해야 할 2가지 일들을 매번 알려주지 않아도 순서대로 한다. 예. 주사위를 먼저 던진 다음에,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하는 2가지 순서를 잘 기억하고 지킨다.	1	2	3	4
3.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이 길더라도(예. 윗놀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한다.	1	2	3	4
4.	게임 규칙을 잘 기억한다.	1	2	3	4
5.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 예. 퍼즐을 맞추다가 어려워도 그만 두지 않는다.	1	2	3	4
6.	잠깐 멈추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	1	2	3	4
7.	지시사항을 반복해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한다.	1	2	3	4
8.	실패했을 때 처음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도전한다. 예. 블록을 쌓다가 쓰러지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블록을 쌓아본다.	1	2	3	4
9.	처음 해보는 게임을 할 때,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설명해도 잘 따라한다.	1	2	3	4

10.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대부분 챙긴다.	1	2	3	4
11.	간단한 암산(예. 2+3)이 가능하다	1	2	3	4
12.	애를 써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예. 숫자 거꾸로 세기)를 풀 수 있다.	1	2	3	4
13.	시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5분과 30분의 차이를 안다.	1	2	3	4
B. 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놀이를 할 때...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4.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차례대로 문제를 맞혀야 할 때, 자신의 차례가 아니면 답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예. 다른 사람이 '숨은 그림'을 찾아야 할 때, "여기 있잖아."하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	1	2	3	4
15.	게임이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자기 순서를 잘 기다린다.	1	2	3	4
16.	상대방이 규칙을 어겨서 화가 나더라도 참는다.	1	2	3	4
17.	아이들과 다투지 않고 게임을 한다.	1	2	3	4
18.	역할놀이를 할 때 항상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여러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	1	2	3	4
19.	자신의 순서를 잘 지키면서 친구와 함께 보드게임을 한다.	1	2	3	4
C. 내 아이는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 할 때...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	비밀을 불쑥 내뱉지 않고 잘 지킨다.	1	2	3	4

21.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대답해야 할 때, 끼어들지 않고 기다린다.	1	2	3	4
22.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린다.	1	2	3	4
23.	상대에게 자기 할 말을 다 했더라도,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1	2	3	4
24.	상대가 질문을 하면, 질문 내용을 끝까지 들은 후에 대답한다.	1	2	3	4
25.	어른이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 일정 시간 기다려준다.	1	2	3	4
26.	화가 나도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밀치지 않고 참는다.	1	2	3	4
27.	상황에 맞도록 얼굴 표정을 조절한다. 예. 재미있게 놀다가도 옆 친구가 혼이 날 때, 웃음을 멈춘다.	1	2	3	4
28.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경우, 스스로 사과한다.	1	2	3	4
29.	다른 아이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은 어른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한다.	1	2	3	4
30.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	1	2	3	4
31.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설명해준다	1	2	3	4
32.	부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1	2	3	4
D. 내 아이는 집 안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33.	식사 시간에 장난치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1	2	3	4

34.	TV로 만화영화를 볼 때, 끝날 때까지 잘 앉아서 본다.	1	2	3	4
35.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허락할 때까지 손대지 않고 참는다.	1	2	3	4
36.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하는 집안일을 부탁하면 완수한다. 예. “상 닦은 다음에, 손가락이랑 젓가락 좀 놔 줄래?”했을 때 차례대로 해낸다.	1	2	3	4
37.	주변이 어수선해도 하던 일에 집중한다. 예. 동생이 울어서 시끄럽게 해도 퍼즐 맞추기를 계속 한다.	1	2	3	4
38.	어떤 일을 끝내는 데 필요한 절차를 중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한다. 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린 다음에, 불을 끄고 나온다.	1	2	3	4
39.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 대부분 기억한다. 예. “장난감 정리하고, 책도 제자리에 꽂아두자.”라고 한꺼번에 시켜도 다 한다.	1	2	3	4
40.	어른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가져온다.	1	2	3	4
41.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한다. 예. 간식을 먹으면서, 장난감 치울 것을 기억한다.	1	2	3	4
42.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하면, 종류별로 모아서 제자리에 갖다놓는다.	1	2	3	4
43.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치운다.	1	2	3	4

44.	자신에게 흥미로운 일이 아니더라도 집중해서 한다. 예. 장난감 정리 등과 같이 재미없는 일이지만 해야 할 때는 끝까지 한다.	1	2	3	4
45.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섞여있을 때 쉽게 분류한다.	1	2	3	4
46.	엄마가 통화 중일 때, 관심을 얻고 싶어도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1	2	3	4
47.	스스로 옷을 입는다.	1	2	3	4
48.	그만하라고 지시하면, 하던 행동을 멈춘다. 예. 장난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만 하라고 하면 멈춘다.	1	2	3	4
49.	하나의 물건을 다른 용도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한다.	1	2	3	4
50.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하던 행동을 멈추고 쉽게 전환한다. 예.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외출하자고 하면, 옷을 갈아입는 등 나갈 준비를 한다.	1	2	3	4
51.	새로운 일(예. 신발 끈이나 머리 묶기)을 시도할 때 엄마의 조언을 활용한다	1	2	3	4
E. 내 아이는 공공장소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52.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때, 줄이 길어도 투덜거리지 않는다. 예.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 서 있을 때.	1	2	3	4
53.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 예. 도서관을 나오기 직전에 새로운 동화책을 꺼내서 읽지 않는다.	1	2	3	4

54.	재미있게 놀다가도 시간이 끝났을 때, 불만 없이 하던 활동을 멈춘다.	1	2	3	4
55.	계획이 변경 되어서 실망할 일이 생겼더라도, 금방 기분이 풀어진다. 예. 놀이터에서 놀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1	2	3	4
56.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더라도 쉽게 풀어진다.	1	2	3	4
57.	조용히 해야 하는 상황일 때, 말하는 것을 참는다. 예.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다.	1	2	3	4
58.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짜증내지 않고 기다린다.	1	2	3	4
59.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예. 식당에서 밥 먹기 vs. 집에서 밥 먹기	1	2	3	4
F. 내 아이는 마트나 쇼핑몰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60.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않아도 오랫동안 실망하지 않는다.	1	2	3	4
61.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하더라도 조절한다. 예. “엄마, 저 아저씨 엄청 똥똥해!”라는 말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들리지 않게 작게 말한다.	1	2	3	4
62.	물건을 계산할 때까지 불평 없이 기다린다.	1	2	3	4
63.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사준다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갖고 싶은 물건을 포기한다.	1	2	3	4

64.	호기심에 물건을 만져보다가도, 엄마가 부탁하면 만지지 않는다. 예. “이건 만지면 깨질 수 있으니까 눈으로만 보자!”했을 때 내려놓는다.	1	2	3	4
65.	만지면 안 되는 것은 만지지 않으려고 참는다. 예. 빵집에서 사지 않을 빵은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손대지 않는다.	1	2	3	4
66.	엄마가 사야할 물건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면, 기억해냈다가 말해준다.	1	2	3	4
67.	작은 슈퍼(편의점) 앞에서 엄마는 들어가지 않고 아이 혼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 그것만 정확하게 사온다.	1	2	3	4
68.	특정 물건을 사려고 슈퍼에 갔을 때, 다른 물건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온다.	1	2	3	4
69.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받아들인다. 예. 사기로 한 것(장난감, 간식)이 품질되어서 못 사더라도 떼를 쓰지 않는다.	1	2	3	4
G. 내 아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70.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줄 때, 조리 있게 말한다. 예.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있다.	1	2	3	4
71.	실제 있었던 일을 들려줄 때,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1	2	3	4
72.	엄마에게 실제로 상상적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 상황을 그럴 듯하게 연결하여 이야기한다.	1	2	3	4
73.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	1	2	3	4

	고 그대로 전달한다.				
74.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중단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1	2	3	4
75.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는다.	1	2	3	4
76.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이야기 나눈다.	1	2	3	4

※다음은 어머니놀이참여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질문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관심 ② 바라보기 ③ 소극적 참여 ④ 적극적 참여

-보기-
① 무관심: 자녀를 혼자 놀게 두거나 아내, 형제자매와 함께 놀게 하고 아버지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② 바라보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자녀의 옆에서 놀이행동을 바라보고 살펴본다.
③ 소극적 참여: 놀이에 참여하지만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참여를 한다.
④ 적극적 참여: 자녀의 놀이에 놀이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며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항내용	무관심	바라 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1. 자녀가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할 때 (종이, 나무퍼즐)	1	2	3	4
2. 자녀가 블록으로 만들기를 할 때 (레고, 나무 또는 종이 블록)	1	2	3	4
3. 자녀가 장난감이나 그 외 물건들을 조립하면 서 놀 때	1	2	3	4
4. 자녀가 몸 간질이기, 서로 껴안기 등 의 신체 놀이를 할 때	1	2	3	4
5. 자녀가 달리기, 잡기 놀이를 할 때	1	2	3	4
6. 자녀가 씨름과 같이 힘 겨루는 놀이를 할 때	1	2	3	4
7. 자녀가 음악에 따라 춤추는 놀이를 할 때	1	2	3	4
8. 자녀가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으려 할 때	1	2	3	4

9. 자녀가 글자 읽기나 쓰기에 관심을 보일 때	1	2	3	4
10. 자녀가 숫자세기에 관심을 보일 때 (수세기, 더하기, 빼기 등)	1	2	3	4
11. 자녀가 주변의 사물이름 말하기 놀이를 할 때	1	2	3	4
12. 자녀가 주사위나 윷 등을 이용한 규칙있는 게임을 할 때	1	2	3	4
13. 자녀가 가위 바위 보 게임이나 손 유희놀이를 할 때(씨씨씨와 같이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놀이를 하고자 할 때)	1	2	3	4
14. 자녀가 숨바꼭질과 같은 숨기 놀이를 할 때	1	2	3	4
15. 자녀가 소꿉놀이를 하려고 할 때 (엄마, 아빠놀이)	1	2	3	4
16. 자녀가 병원놀이를 하려고 할 때 (의사, 간호사, 환자)	1	2	3	4
17. 자녀가 인형이나 로봇으로 상상놀이를 하려고 할 때	1	2	3	4
18. 자녀가 가게 놀이를 하려고 할 때	1	2	3	4
19. 자녀가 공놀이를 할 때 (공 던지기, 공굴리기)	1	2	3	4
20. 자녀가 목적물 맞추기 놀이를 할 때 (장난감 볼링, 다트)	1	2	3	4
21. 자녀가 비행기 날리기와 같은 활동 적인 놀이를 할 때	1	2	3	4
22. 자녀가 비눗방울 놀이나 빨대불기 놀이를 할 때	1	2	3	4